보도자료

대한민국 최초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Stock Owner-Employee (SOE) Partnership Project

연구사업 경과 보고

연구주관 기관: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중민재단)

이사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책임자: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

❖ **추가 정보 문의**

- 중민재단 한상진 이사장: 02-875-8474
-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이영조 사장
-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SOE (Stock Owner-Employee) Partnership Project

"쌍용머티리얼 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한 한세희 주주의 주식증여 완료!!"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중민재단)과 쌍용머티리얼 주식회사는 한세희 주주에 의한 쌍용머티리얼 임직원에 대한 10만주의 주식증여가 2012년 6월 22일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쌍용머티리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 한세희는 2012년 3월 8일 주식 일부를 장내에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이 쌍용머티리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인식으로;
2. 10만주의 주식을 동 회사의 복지기금에 증여하였고;
3. 아울러 10만주의 주식을 임직원 개개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그 방식과 절차에 관한 연구를 중민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중민재단은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6. 쌍용머티리얼 이영조 사장과 박장희 노조위원장의 협력을 얻어 쌍용머티리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7.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게 웹서버를 통한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8. 설문조사는 2012년 5월 28일 280명이 응답을 완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9. 설문 가운데 주식증여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장을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주식을 똑 같이 배분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 한편 쌍용머티리얼은 주식증여의 대상을 **283명 임직원으로 확정**하고 이들의 증권계좌 정보를 6월 20일 중민재단에 알려옴에 따라,
11. 중민재단은 이들 **개개인에게 353주씩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팀의 의견을 한세희 주주에게 전달하였고'
12. **주주 한세희는 6월 22일 미국에서 직접 283명 각 개인의 증권계좌로 353주씩 증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중민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이끈 연구팀과 한국리서치 그리고 응답해주신 쌍용머티리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중민재단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다룬 여러 차원의 공평성의 문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의견, 노블리즈오블리제에 대한 평가, 주식투자와 주주 이미지 등에 관한 흥미로운 심층분석 결과를 금년 8월의 학술모임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쌍용머티리얼은 이번 계기로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사심이 많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주식을 증여 받은 쌍용머티리얼의 임직원들은 대체로 "고맙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다", "증여 받은 주식을 단기간 내에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겠다" 등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쌍용머티리얼 임직원들은 당초 증여자 한세희씨와의 합의대로 본인 부담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어지는 설문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2012년 6월 25일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이사장 한상진**

쌍용머티리얼 **사장 이영조**